



그해 6월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당신 나라에서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졌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 대통령은 조종사 10명을 보내 단기훈련을 받고 ‘무스탕’을 몰고 오게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행기가 없으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하하는 북한군의 거센 공세를 막을 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맥아더와의 통화가 끝나자 대통령은 워싱턴의 장면 주미대사를 불렀습니다. “장대사! 트루먼 대통령을 즉시 만나 이렇게 전하십시오. 적은 우리 문전에 와 있다고. 미 의회가 승인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결재한 2000만 달러 무기 지원은 어떻게 된 것이요?”

북한군은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을 택해 전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은 마침 토요일 오후 시간, 트루먼 대통령도 고향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워싱턴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는 사력을 다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국무성 고위관리들과 수차례 접촉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이사회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실로 그에게는 ‘한 시간이 일 년 만큼이나 귀중’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6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장면 대사는 비로소 백악관에서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미국의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 호소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훗날 트루먼은 회고록에서 ‘대사가 집무실에 들어

섰을 때 눈물이 글썽해 사기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술회했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마치고 백악관을 나갈 때 장 대사의 태도는 의연했습니다. 결과를 듣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그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군들이 우리를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싸우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가 맡을 것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벌써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기간 도쿄의 연합군 사령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개전 닷새째인 6월 29일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중요 참모들과 함께 전용기 ‘바탄호’를 타고 수원에 날아왔습니다. 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전황은 맥아더 장군 일행을 만나기 위해 대전에서 수원까지 이동하던 이 대통령과 무초 미국 대사가 탄 정찰기가 북한 야크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맥아더 장군은 지프포적의 코앞인 영등포까지 북상해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참모들의 증언에 의하면 장군은 근처 언덕에 올라 한강 남안 국군의 방어 진지에 북한 포병 부대가 대포와 박격포를 맹렬히 퍼붓고 있는 장면을 20여 분 가량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적의 수중에 들어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서울 시내, 시뻘건 한강, 다리를 끊어 퇴각하는 부상병들의 모습... 그때 그는 그곳에서 미국의 지상 전투부대가 투입되어야만 한국

을 구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귀임한 다음 날 맥아더 사령관은 한국전에 미 지상 전투부대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지급전보 형식으로 국방성에 보냅니다. 이 보고는 바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제한된 지상군 투입을 재가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두려워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한국처럼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미 제24사단의 선발부대가 부산에 도착했고 7월 5일에는 단 소장이 이끄는 미 2사단 병력 전원이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나아가 7월 7일에는 유엔이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와 회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 지휘 하에 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16개국 군대로 유엔군을 편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쟁 발발 6일 만에 이루어진 미국의 신속한 참전 결정은 한국전쟁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군사학자들은 ‘없어질 뻔했던 나라가 살아남는 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개입은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이어지고 이후 한반도 평화와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해 6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전쟁의 대재난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김성동 장로(전 국회의원)

이영훈 목사, 중앙일간지 기자간담회 개최

세계오순절대회, 사랑나눔, 평양심장병원 진행 상황 알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신문 우리 교회 사역에 주목

이영훈 담임목사는 14일 플라자호텔에서 일간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영훈 목사와 이승한 홍보국장, 김영석 세계오순절대회 부분부장이 참석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세계오순절대회와 지난해 106억원을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을 도운 섬김 사역, 평양심장병원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 주

요 언론에서는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

이영훈 목사는 10월 12~14일 열리는 세계오순절대회에 전 세계 170개국에서 온 5000명의 해외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세계오순절대회 마지막 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대성회는 전 세계 유망한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만명이 모여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 남북대화를 위해 기도하며 음악회도 함께 진행해 전 세계 주요국 언론 매체들

이 보도하고 유튜브로도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훈 목사는 “아프리카 말라위 라자루스 차퀘라 대통령도 참여해 강연을 한다”며 “차퀘라 대통령은 목사로서 직전 말라위 하나님의교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소외계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106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나눔과 섬김, 사회구원은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석 전에 영세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50억원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나눔 사역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언론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도한 것은 우리 교회의 북한 사역이었다. 이영훈 목사는 평양심장병원 건설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

명하며 “지난해 10월 28일에 UN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이 났고 이후 북측에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평양심장병원은 현재 70%정도 공사가 완료됐으며 공사를 재개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심장병원 의료장비 지원 및 설치는 미국의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안퍼스 재단이 담당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해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

이영훈 목사는 “북측에서 평양 심장병원 준공과 동시에 북한 260개 군에 인민병원을 세우고 필요한 약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심장병원 준공 후, 다음 프로젝트로 한국의 개신교계와 협력해 인민병원을 세울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나 기자

여선교회 정기월례회

- 일시 : 6월 19일(주일) 오후 3시
- 강사 : 황윤성 목사
- 장소 : 베들레헴성전

2022 찬양대교구 찬양세미나

- 일시 : 7월 2일(토) 오후 1시
- 강사 : 박치용(서울모테트합창단 지휘자)
- 손경민(침례신학대 겸임교수)
- ※ 은혜, 주의 은혜라 등 다수 작사, 작곡
- 장소 : 바울성전

재능기부나눔센터 접수리 봉사자 모집

- 모집대상 : 이웃을 사랑하고 재능기부로 헌신하고 싶으신 성도님
- 모집분야 : 도배, 장판, 페인트, 전기, 목공, 청소, 기타 등
- 순복음러브하우스 접수리대상자 추천 -
- 추천대상 : 모든 대교구 및 지성전 성도 (극빈자, 장애우, 홀몸어르신, 미혼모, 한부모,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 재개발 예정 지역 및 자가소유자 제외
- 신청 문의 : 02-6181-7710, 7594

찬양대교구 임마누엘 찬양대(주일5부) 대원 모집

- 자격 :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 물 침례 받은 성도
- 모집파트 :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문의 : 02-6181-6704

제42회 온라인 세미나

마더스 드림

Mother's Dream

“성령님을 기쁘사게” [습3:17] [제작필수코스]

2022.6.21(화)~23(목)

문의 : 02)6181-5217, 7434 (국선원 교육연구소)

여호와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한반도 평화통일 금식기도대성회

이영훈 목사 | 김원철 목사

2022.6.20(월) ~ 6.25(토)

장소 : 오산리화실기쁨금식기도원 예루살렘성전

오산리기도원 차장 운행 시간						
본교회 출발	07:00	08:30	10:30	12:00	14:00	15:30
기도원 출발	08:30	10:30	12:30	14:00	16:30	18:00

오산리화실기쁨금식기도원

경기도 파주시 조곡읍 동원로 39(연길 42) TEL: 02-6181-9182-88

2부, 3부 강요절하는 유류비를 통해 생생합니다. https://GPPRAY.COM